

‘그리스도’와 ‘기독교(基督)’의 어원

김무림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1.

‘기독교(基督教)’의 의미는 ‘그리스도교’를 의미하지만, 한국에서 그리스도교는 일반적으로 가톨릭과 기독교(基督教)로 양분하여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천주교(天主敎)라고도 하며, 프로테스탄트인 기독교는 개신교(改新敎)라고도 합니다. 가톨릭은 18세기에, 기독교는 19세기에 각각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이후 꾸준히 교세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어원에 대한 것은 이 종교에 대한 교의적 근원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서 한자어로 되어 있는 ‘기독교(基督教)’란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데에 주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영어 ‘Catholic’을 한글로 음역(音譯)한 것으로서, ‘Catholic’은 원래 ‘보편적(普遍的, universal), 일반적(一般的, general)’이란 뜻으로서, 그리스어 ‘katholikos’에서 유래한 라틴어 ‘catholic(us)’에 직접적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은 ‘Catholic Church’란 용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파 분열 이전의 그리스도교를 뜻하게 되어, 프로

테스탄트인 신교(新敎)와 대립하는 구교(舊敎)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톨릭’과 상대되는 ‘기독교(교)’ 또는 ‘그리스도(교)’의 어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국어사전에서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로 정의되며, ‘기독교(基督教)’는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② 우리나라에서 개신교(改新敎)를 이르는 말.’ 등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와 기독교는 ①의 뜻에서 서로 일치하지만, ‘기독교’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②의 좁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기독교’의 의미가 ‘그리스도교’의 의미보다 좀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基督教)’의 개개의 한자를 의미로 풀다면, ‘기(基, 터), 독(督, 살펴보다/단속하다), 교(敎, 가르침)’ 등이므로, 어떻게 조합을 하여도 ‘그리스도교’의 의미에 대응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독(基督)’은 한자의 뜻으로 조어(造語)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 음역(漢字音譯)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기독’은 어원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영어 ‘Christ’의 어원을 영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소개하겠습니다.

● ‘Christ[kraist]’의 어원

- Christ learned respelling of
 - 〈 ME, OE *Crist*
 - 〈 L. *Christ(us)*
 - 〈 GK. *Christos*, the Anointed, trans. of Heb. mashiah

즉 영어의 'Christ'는 히브리어를 번역하여 차용한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면서, 직접적인 철자의 기원은 라틴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원적 의미는 '기름을 뿌려 성화(聖化)하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하느님이 머리에 기름 뿌려 준 자(the Lord's Anointed)'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음역(音譯)에 바탕을 둔 언어가 현대의 영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습니다.

'大漢和辭典'에 의하면 '基督'은 '基利斯督'의 약칭이라 하였는데, '基利斯督'는 일본 한자음으로 읽으면 [キリシトク/kirisitoku]가 되지만, '日本國語大辭典'에서는 문헌상의 출현 시기에 따라 'キリシト'에서 'キリスト(基督)'가 된 것이라 하고, 'キリスト'는 포르투갈어 'Christo'에 대한 음역(音譯)이라고 하였습니다. '日本國語大辭典'에서 든 문헌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日本國語大辭典' 3:930

- 妙貞問答-下 '御主の御名をば、ぜず-きりしとと申奉り'
- 改正増補和英語林集成 'Kirisuto キリスト 基督'

'묘정문답(妙貞問答)'은 에도(江戸) 초기의 종교에 대한 책으로서 1605년에 성립된 것이라고 하므로, '基利斯督(キリシト)'라는 외래어가 일본어에 들어온 시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キリシト'에서 'キリスト(基督)'가 된 것은 당시의 일상어에서 '基利斯督'라는 한자 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단지 '基督'이라고 하게 되면서, 아울러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도 원음에 가까운 'キリスト'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점은 한어(漢語)에서도 '基督教(ji-du-jiao)'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단어의 시작이 한어(漢語)에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선 한어의 역사적 문헌에 이 말이 나타나지 않고,

‘基督’이라는 말이 ‘基利斯督’의 약칭에서 성립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어(漢語)의 일상어에서 ‘基督’이라는 축약된 말이 바로 시작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데 일본인 ‘마쓰다히로시(松田裕)’가 ‘國語學 131’(일본, 國語學會, 1982)의 ‘宛字 ‘基督’考’라는 논문에서, 16세기 후반에 중국에 주재한 프로테스탄트 선교사가 지은 한적 문헌(漢籍文獻)에 포르투갈어 ‘Christo’를 ‘契利斯督’나 ‘基利斯督’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며, 이것이 일본어에 들어온 것이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基利斯督’의 약칭인 ‘基督’도 선교사에 의해 쓰이다가 한역 성서(漢譯聖書)에서 일정한 용어로서 정착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증은 매우 신뢰할 만한 것이므로, ‘契利斯督’나 ‘基利斯督’라는 차음 표기, 그리고 ‘基利斯督’의 약칭인 ‘基督’이라는 말이 생긴 연원은 중국에서 주재한 서양의 선교사에 있다고 하겠으며, 굳이 언어적 근원을 따진다면 한어(漢語)에 있다고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어의 ‘그리스도’가 직접 포르투갈어나 그리스어의 ‘Christo(s)’에서 왔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일제 강점기를 겪은 개화기 국어의 입장과 마지막 음절 ‘-도’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일본어 ‘키리스토[kirisuto]’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된 것은 그리스어나 라틴어 계열의 원음을 반영하여 형태의 조정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국어의 한자어 ‘기독교(基督)’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자어 ‘基督’은 한역 성서(漢譯聖書)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어에서 ‘基督教’은 일상용어로 사용된 연원이 오래되었으므로, 일본어를 매개로 하여 수입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좀 더 앞으로의 실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基督’이라고 표기하면서도 [ki-to] 또는 [ki-toku]로 일지 않고, 반드시 ‘키리스토[kirisuto]’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어 표기 ‘基督’을 국어에서 하나의 단어로 받아들이면서도, 독음(讀音)만은 국어 한자음으로 읽어

‘기독교’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특히 훈독(訓讀)하는 일본어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일본어에서는 ‘基督’을 ‘キリスト[kirisuto]’라고 읽으므로, 일본어에서 ‘キリスト[kirisuto]’와 ‘基督’은 표기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구어(口語)의 차원에서는 하나의 같은 말입니다. ‘基督국어에서 ‘그리스도’와 ‘기독교(基督)’이라는 두 단어가 형태적으로 별개의 단어가 된 것은 외래어에 대한 국어의 차용 구조 속에서 이들 단어가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입니다.

3.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기독교(基督)’에 대한 어원 설명을 하였습니다. ‘Christo’에 대한 차음 표기의 관점에서 보면, 국어의 ‘그리스도’나 ‘기독교’은 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나 그 표기의 역사적 근원과 표기의 차이에 의하여 하나는 서양계 외래어로 취급되고, 하나는 한자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어, 한어(漢語), 일본어의 한자음 차이와 다른 독법(讀法)에 의하여 같은 표기 ‘基督’은 세 언어에서 달리 읽히고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근원이 같은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해당 언어의 구조 속에서 새로 탄생하고 변화됩니다. 아마도 ‘기독교’라는 종교 정신도 ‘基督’이라는 말처럼, 세상에 전파되어 퍼지게 되면서 그 원리나 방법이 달리 수용되고 변환되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언어는 형태가 바뀌면 의미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 역사적 원칙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와 ‘기독교’이라는 말이 상당히 다른 의미나 용법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지금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용법의 차이로서 ‘그리스도교인(一敎人)’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교인(基督敎人)’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수는 있지만, ‘기독교’를 따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

다. 달리 종교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내용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뚜렷한 것으로는 ‘그리스도교’는 구교(舊敎)와 신교(新敎)를 중립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교’는 신교적(新敎的) 색채가 좀 더 풍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어에서 ‘기독교(基督教)’는 구교(舊敎)보다는 거의 신교(新敎)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 한국 종교계의 현실이라고 생각되므로, 종교를 내용적으로 지칭하는 차원에서도 ‘그리스도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국어 생활에서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이기문(1991),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21세기 세종계획(<http://www.sejong.or.kr>): 한민족 언어 정보 검색

마쓰다히로시(松田裕, 1982), ‘宛字 ‘基督’考’, “國語學” 131, 일본, 國語學

會

- 기타 자료 문헌 및 사진은 본문을 참조.
- 본고의 집필에 강릉원주대학교 일본학과 박종승 교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